

‘이동경 결승골’ 한국, 엘살바도르 꺾고 월드컵 출격



지난 3일 (현지시간) 오후 미국 유타주 프로보에 위치한 브리검영대 사우스필드에서 열린 대한민국과 엘살바도르의 경기. 한국 이동경이 골을 성공시킨 뒤 황희찬과 함께 기뻐하고 있다. **황남**

후반 프리킥 썩기골로 1-0 승리...사전캠프 2연승 마무리 트리니다드토바고전 5-0 이어 무실점... 본선 준비 돌입

홍명보 감독이 이끄는 한국 축구대표팀이 2026 북중미 월드컵을 앞둔 마지막 평가전에서도 승리를 거두며 본선 무대를 향한 준비를 성공적으로 마쳤다.

한국은 4일 (한국시간) 미국 유타주 프로보의 브리검영대 사우스필드에서 열린 엘살바도르와 평가전에서 후반 12분 터진 이동경(울산)의 프리킥 결승골에 힘입어 1-0으로 승리했다.

앞서 트리니다드토바고를 5-0으로 대파했던 한국은 사전캠프 기간 치른 두 차례 평가전을 모두 무실점 승리로 장식했다.

지난 3일 유럽 원정에서 기록한 2경기 연속 무득점 패배의 아쉬움도 털어냈다.

한국은 지난해 6월 아시아 최종예선에서 6승 4무 무패로 조 1위를 차지하며 11회 연속 월드컵 본선 진출을 확정했다.

이후 치른 10차례 평가전에서는 6승 1무 3패를 기록하며 경쟁력을 점검해왔다.

특히 과달라하라의 고지대 적응력을 높이고자 지난달 18일 해발 1460m에 있는 솔트레이크시티에 사전캠프를 차리며 적응을 이어왔다.

이후 두 차례의 평가전에서 모두 승리를 거두며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다.

엘살바도르전을 끝으로 사전캠프 훈련 일정을 모두 마친 홍명보호는 잠시 휴식을 취한다.

이날 6일 전세기 편으로 조별리그 1, 2차전 결전지이자 베이스캠프가 있는 멕시코 과달라하라에 입성한다.

대회 조별리그 A조에 자리한 한국은 체코(12일), 멕시코(19일), 남아프리카공화국(25일)을 차례로 만난다.

국제축구연맹(FIFA) 랭킹 25위인 한국은 이날 100위 엘살바도르를 상대로 경기 주도권을 잡고 공격을 펼쳤다.

홍 감독은 조규성(미트윌란)을 최전방에 배치하고 황희찬(울버햄프턴), 이동경을 양 측면에 세웠다.

중원은 황인범(페예노르트)과 이재성(마인츠), 이태석(아우스트리아 빈), 설영우(즈베즈다)가 나섰다.

수비는 이기혁(강원), 김민재(바이에른 뮌헨), 이한범(미트윌란)이 맡고, 골키퍼 장갑은 김승규(도쿄)가 꼈다.

손흥민(LAFC)과 오현규(베식타시)는 벤치에서 경기를 시작했다.

경반 초반부터 한국이 적극적으로 공격에 나섰다. 전반 7분 황인범의 프리킥 직접 슈팅을 시작으로 상대 골문을 두드렸고, 전반 10분에는 이태석(오스트리아 빈)의 날카로운 크로스가 조규성을 향했지만 수비에 막혔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엘살바도르의 밀집 수비와 압박에 고전했다.

전반 28분 설영우(즈베즈다)의 왼발 슈팅 외에는 결정적인 장면을 만들지 못했다. 전반 32분에는 헤페르손 바이아레스의 돌파를 허용하며 위기를 맞기도 했다.

홍 감독은 후반 시작과 함께 수비수 조위제(전북)와 골키퍼 송범근(전북)을 투입하며 변화를 줬다. 후반 들어 공격 템포가 살아난 한국은 후반 7분 설영우의 컷백을 받은 이동경의 슈팅으로 분위기를 끌어올렸다.

결국 후반 12분 균영이 깨졌다.

페널티아크 오른쪽 부근에서 얻어낸 프리킥 상황. 키커로 나선 이동경은 과감한 왼발 슈팅으로 가까운 쪽 골문을 정확히 꿰뚫으며 선제 결승골을 터뜨렸다.

이동경의 A매치 통산 4호 골이었다.

리드를 잡은 홍명보 감독은 후반 18분 대거 선수 교체를 단행했다. 손흥민, 이강인(파리 생제르맹), 오현규, 양현준(셀틱), 백승호(버밍엄시티), 김진규(전북), 박진섭(저장FC), 엔스 카스트로프(원앤글라트브루)를 한꺼번에 투입하며 다양한 전술 조합을 점검했다.

후반 23분에는 손흥민에게 추가골 기회가 찾아왔다. 엔스 카스트로프의 컷백 패스를 골문 정면에서 받아 슈팅으로 연결했지만 공은 골대 위로 벗어나며 아쉬움을 남겼다.

한국은 남은 시간 안정적인 경기 운영으로 리드를 지켜내며 1-0 승리를 완성했다.

송하중 기자 hajong2@gwangnam.co.kr

광주·전남지역 대학양궁 빛났다 이수연 3관왕·김다니엘 금메달

광주·전남 대학 양궁이 전국 무대에서 뛰어난 성과를 거두며 지역 양궁의 위상을 드높였다. 광주여대 이수연은 3관왕에 오르며 대회를 빛냈고, 순천대는 김서하와 김다니엘을 앞세워 다수의 메달을 수확했다.

광주여대 이수연은 지난 2일 전북 익산종합경기장에서 막을 내린 '제29회 회장기 전국대학양궁선수권대회' 여자부에서 금메달 3개를 목에 걸었다.



광주여대 이수연, 순천대 김서하(왼쪽)와 김다니엘

이수연은 여자부 거리별 경기60m에서 348점을 기록해 김서하(순천대·347점)를 1점 차로 제치고 정상에 올랐다. 이어 50m에서도 344점을 쏘며 금메달을 추가했다. 또 거리별 경기 합산 성적으로 순위를 가리는 개인종합에서도 1378점을 기록, 염혜정(경희대·1375점)을 따돌리고 우승하며 대회 3관왕을 달성했다.

광주여대는 단체전에서도 선전했다. 이수연, 김하람, 한유진, 남지현이 출전한 단체전 종합득점에서 4073점을 기록해 한국체대와 경희대에 이어 동메달을 획득했다. 올림픽라운드 방식으로 진행된 여자부 단체전에서는 8강에서 원광대를 꺾고 준결승에 진출했으나, 경희대에 패해 공동 3위로 대회를 마쳤다.

이수연은 "기보배, 최미선, 안산 등 올림픽 금메달리스트를 배출한 광주여대 양궁부의 일원이라는 자부심을 갖고 매 경기에 임하고 있다"며 "이번 결과에 만족하지 않고 오는 21일부터 광주에서 열리는 대동경기 대회에서도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전남 양궁의 활약도 돋보였다. 순천대 김다니엘은 값진 금메달을 보냈다. 남지현대학부 리커브 50m 경기에서 344점을 기록하며 송지성(계명대·342점)을 제치고 금메달을 획득했다. 이어 김서하와 함께 출전한 혼성단체전에서도 동메달을 따내며 금메달 1개

와 동메달 1개를 수확했다. 김서하는 여자부 개인전에서 은메달을 차지했다. 64강을 부전승으로 통과한 뒤 32강 김하은(광주여대), 16강 서보은(순천대), 8강 조수혜(한국체대), 4강 조한이(한국체대)를 차례로 꺾고 결승에 진출했다.

결승에서는 안서윤(한국체대)과 슛오프까지 가는 접전을 펼쳤지만 세트스코어 5-6으로 아쉽게 패했다.

김서하는 개인전 은메달 외에도 60m 은메달, 개인종합 동메달 등을 추가하며 은메달 2개와 동메달 2개를 획득했다. 특히 지난 4월 전국남녀양궁종별선수권대회 3관왕에 이어 이번 대회에서도 꾸준한 경쟁력을 입증하며 국가대표다운 면모를 보여줬다. 김서하는 오는 11월 중국 항저우에서 열리는 제3차 아시아컵대회에 국가대표 2인 자격으로 출전할 예정이다.

송진호 전남도체육회장은 "국가대표 김서하를 비롯한 전남 선수들이 전국 무대에서 꾸준히 우수한 성과를 내며 전남 체육의 위상을 높이고 있다"며 "우수 선수 발굴과 체계적인 육성 시스템을 바탕으로 대한민국 스포츠를 이끌 인재를 지속적으로 배출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송하중 기자 hajong2@gwangnam.co.kr

전남 직장운동경기부, 전문체육 경쟁력 강화 나선다

문화체육관광부 운영지원 공모
16개팀 6억5000만원 국비 확보



지원 대상에 이름을 올린 광양시청 불링팀. 사진제공=전남도체육회

전남 직장운동경기부가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에 선정되며 전문체육 경쟁력 강화에 나선다. 전남도체육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한 '2026년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지원 공모사업'에서 전남 지역 7개 단체 16개 팀이 최종 선정돼 총 6억 5370만원의 국비를 확보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직장운동경기부의 안정적인 운영 기반을 마련하고 우수 선수 육성과 경기력 향상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됐다. 전국에서는 149개 단체, 495개 팀이 신청해 경쟁을 벌였으며, 심사를 거쳐 지원 대상이 최종 확정됐다.

전남에서는 영암군청 씨름부를 비롯해 목포시청 복싱·육상·하키, 여수시청 요트·육상·유도·롤러, 순천시청 소프트테니스·양궁·유도, 광양시청 육상·불링, 한국전력공사 럭비·육상, 진도군청 육상 등 총 16개 팀이 지원 대상에 이름을 올렸다.

지원 규모는 여수시청이 1억90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목포시청이 1억3300만원, 순천시청이 1억925만원을 확보했다.

전남 연고의 한국전력공사는 8550만원, 광양시청은 6650만원, 영암군청은 4000만원, 진도군청은 2945만원을 각각 지원받는다.

이번 선정은 전남 직장운동경기부가 그동안 쌓아온 운영 역량과 선수 육성 성과를 인정받은 결과로 평가된다.

확보된 국비는 선수단 훈련 환경 개선과 장비보급, 경기훈련, 우수 선수 육성 등 경기력 향상을 위한 다양한 사업에 활용될 예정이다.

전남은 전국대회와 각종 전국대회에서 직장운동경기부가 지역 전문체육의 중심축 역할을 해오고 있다.

특히 육상과 양궁, 유도, 씨름, 요트 등 여러 종목에서 꾸준히 국가대표와 전국 정상급 선수들을 배출하며 전남 체육의 경쟁력을 이끌고 있다. 송진호 전남도체육회장은 "이번 공모 선정은 도내 직장운동경기부 관계자들의 헌신과 선수들의 노력이 만들어낸 값진 결실"이라며 "앞으로도 직장운동경기부가 지역 체육 발전의 중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하고, 전국 무대에서 전남 체육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송하중 기자 hajong2@gwangnam.co.kr

여자배구, AVC컵서 명예 회복 시동...내일 키르기스스탄과 첫판

차상현호, 첫 국제대회 출격



차상현 감독이 이끄는 여자 배구대표팀(세계랭킹 40위)이 올해 첫 국제대회인 2026 아시아배구연맹(AVC)컵 여자대회에서 명예 회복에 나선다. 대표팀은 6일 오후 10시(한국시간) 필리핀 남일코스주 캄든 시티 아레나에서 키르기스스탄(65위)과 대회 조별리그 B조 첫 경기에 나선다. 한때 세계를 호령했던 여자 대표팀은 김연경, 양효진 등 일명 '황금 세대' 주축 선수들의 은퇴와 세대교체 실패로 국제 경쟁력이 크게 약화됐다. 대표팀은 2023년에 열린 2022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 5위에 밀리며 2006년 도하 대회 이래 17년 만이자 아시안게임 역대 두 번째 노메달에 그쳤고, 지난해엔 국제배구연맹(FIVB) 발리볼네이션

스리그(VNL)에서 1승 11패의 초라한 성적으로 전체 18개 참가국 중 최하위로 밀리면서 VNL 잔류에 실패했다. 한국 여자 배구는 아시아에서도 예전 위상을 잃었다. 일본(5위), 중국(7위)과 격차는 크게 벌어

졌고 태국(19위), 베트남(28위), 카자흐스탄(37위), 대만(38위)에도 밀리는 것이 현실이다. 위기감을 느낀 대한배구협회는 오는 9월에 열리는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에 대비해 세대교체를 속도를 냈고, 올해 초 차상현 감독과 이숙자 코치를 신임해 물갈이에 나섰다. 차 감독과 이 코치는 절차상 문제로 인준받지 못했고, 4월이 돼야 공식적으로 지휘봉을 잡았다. 이번 대회엔 세트 김다인(현대건설), 이수연(한국도로공사), 리베로 이영주(현대건설), 한다혜(페퍼커피), 아웃사이드히터 강소희(한국도로공사), 김효일(GS칼텍스), 박여름(정관장), 이예린(현대건설), 정윤주(흥국생명), 아포짓스 파이커 나현수(현대건설), 미들블로커 김세민(한국도로공사), 박은진(정관장), 이다현(흥국생명), 이주아(IBK기업은행)가 출전한다. 연합뉴스